일본 식품물가 및 식품업계 동향

오사카aT센터 단신 6호 (2014.5.26)

소비세 증세 후 식품업계 동향

- 증세 직후 1개월간 가격 상승압력 발생
 - '14년 4월 소비세 3% 인상 후 주요품목(일용품 포함) 80%가 가격인상
 - 제조업체 원료가격상승,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인상 압력
- 식품업계 '14년 4월 전년대비 매출감소 5.4%(체인스토아협회)
 - 소매유통업 '14년 4월 전년동월대비 매출액 5.4% 감소
 - 반찬 소재류(1.9% 증가), 정육(1.6% 증가)은 증가

소비세 증세 후 실질 가격상승

- 소비세 증세 전후와 비교하여 주요품목(일용품 포함) 80%가 가격 상승
 - 소비세 증세 후 수요감소 인한 소매유통점의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수요감소폭이 예상 외로 적어, 특가판매 등의 가격하락요인이 나타나지 않음
 - 증세 전 가공식품의 사재기 등 가수요 발생으로 인해 4월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입가격이 높아져 판매가격 상승

<2014년 3월/4월 주요 상품 가격인상율>

품목	3월과 4월의 세전 가격상승율(%)
슬라이스 프로세스치즈(유키지루시메크밀크)	5.7
진한간장(키코망)	5.5
즉석컵중화소바(닛신식품)	2.9
마요네즈(키코망)	2.3
샐러드유	2.9
우유1L(메이지)	1.3
천연수(기린비버리지)	-2.2
달걀	-2.5

닛케이 조사에 의하면 주요조사품목(일용품 포함)의 80%가 3월과 4월 세전 가격상승
 - 닛케이 POS데이터 세전가격비교표 참조-닛케이 '14.5.22일자 -

● 증세 후 소매유통업계 동향(일본체인스토아협회 발표 참고)

- '14년 4월 전국슈퍼 매출 1조 42억엔으로 기존점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5.4% 감소(식료품은 4.5% 감소)
 - ※ '97년 2% 증세의 경우 증세 당월(4월) 매출은 전년대비 4.6% 감소
 - ※ 일본 슈퍼마켓협회 등은 '14년 4월 전년대비 매출증감은 3.6% 감소
- '14년 3월 매출은 증세 전 사재기 발생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9.4% 증가
- 반면, 소재류(1.9% 증가), 정육(1.6% 증가) 등의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 식품의 매출은 견조를 보임

식품업계 향후 전망

- 원료가격 상승,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식품 등의 제조업체 가격인상이 점진적으로 말단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짐
 - 제조업체 관계자는 증세 후 1개월이 지나면서 천천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봄
 - 4월 10일부터 식용유 약 8~10%, 참기름 20% 이상 가격인상한 닛신오 일리오그룹은 4월 하순부터 점포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함.

※ 엔저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원료가격상승 압력이 계속되면 지속적인 가격인상의 요인으로 작용 예상

● 소매유통업의 PB 강화

- 일본 대형유통업체 이온, 이토요카도는 PB상품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음

● 제조업체 가격경쟁 가능성

- 제조업체가 소매유통업체의 PB에 대항하기 위해 특가판매 등의 가격인하 정책을 편다면 전체적으로 가격하락 가능성도 있음

시사점

[치열한 가격경쟁에 대한 대비 필요]

● 한국 농식품 대일본 수출확대를 위해 엔저, 한류붐 냉각 등의 장애가 있지만, 내용량 조정, 원재료 수출 강화 등을 통한 수출확대 모색

⇒ 동일한 가격의 내용량 조정을 통한 가격상승 압박 극복

⇒ 원재료의 대량 공급망 발굴을 통한 수출단가 개선

● 대형소매유통업체의 PB 강화에 맞춰 한국 농식품의 유통업체 PB상품 개발 등 필요

* 단, 대량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등 PB 상품 공급에 따른 리스크 감안

※ 유통업체 '13년 연간 한국산 매출 중 PB 매출비중 : U사(유통업체PB)

44%, K사(수입업체PB) 39% → 오사카aT 공동주체 한국페어 개최

⇒ 유통업체 바이어 한국 제조업체 투어 및 상담을 통한 상품개발 지원

※ 일본체인스토아, 닛케이신문 '14.5.22일자 참고

[문의 : 오사카aT센터 유정열 / yjy@atcenter.or.jp]